



[특집 논문]

#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문학

-1930년대를 중심으로

이명학  
(중국 청도대)

차 례

- |                  |                   |
|------------------|-------------------|
| 1. 서론            | 1) 모더니즘의 생성       |
| 2. 근대성의 인식       | 2) 모더니즘 정의와 인식    |
| 1) 서구 근대의 산생과 발전 | 4.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의 관계 |
| 2) 한국의 근대와 모더니티  | 5. 결론 - 한국문학의 특징  |
| 3. 모더니즘의 인식      |                   |

## 1. 서론

근대의 시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확연히 구분지어지지 않고 역사발전의 단계를 과도하면서 서서히 시작되고 또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게 표현되었다. 대체로 서양과 동양의 근대적 시기를 구별한다면 유럽에서 먼저 근대가 시작되고 동양에서는 뒤늦게 근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근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학계에 있어서도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이식문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대립항은 근대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단적인 경우라할 수 있다. 이처럼 개념적 혼란이 전제된 상황을 감안하면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에 대해 재확인하고 또 그와 밀접히 관련지어 형성된 모더니즘 문학의 양상을 살펴보려 하는 것이 본고의 취지이다.

1) 여기서는 서구의 근대를 보편화할 경우에 한해서 시간 선후를 구별하였다.

## 2. 근대성의 인식

### 1) 서구 근대의 산생과 발전

근대성이란 근대(근대적 시기) 혹은 (근대의 특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근대성을 이성중심주의, 주체중심주의와 근대적 합리성, 계몽주의 또는 인본주의 등으로 요약한다. 여기서 합리성은 자아를 중심으로 한 도구적 합리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서구를 근거로 삼을 때, 근대의 특성을 산업화 시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학문명과 도시문화의 출현에 따른 근대적 삶의 방식에서 찾을 수도 있다.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간의 삶의 방식도 자급자족적인 자연적 생산에서 기계화된 상품생산의 집단적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로써 공장이 생기고 철도가 부설되고 도시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상과 신이 지배하던 중세시기는 지나가고 인간의 의식에는 자아와 이성이 중심적 사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곧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근대란 근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의 한 산물이며, 그것은 합리주의 정신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그 정신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 2) 한국의 근대와 모더니티

한국의 근대를 서구의 근대를 이식한 근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생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한국적 상황은 식민지 시대적 특성으로 인하여 근대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억압적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시기를 먼저 이루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다.<sup>3)</sup> 한국의 근대란 주체상실의 근대로서 이 시기에는 리얼리즘을 이어 문학에

2) 한국에서는 모더니즘 문학이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3) 일본은 서구를 따라배우기 <우등생>이라고 하지만 일본도 초기에는 동양의 다른 나라들처럼 저항과 거부의 힘이 미약하여 수동적으로 근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 순수예술로 특징지어지는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다. 서구의 근대문학은 근대사회의 문명과 과학에 대해 비평이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서구문명과 과학을 진보라는 가치 지향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진행되었다. 근대가 삶의 조건이 되어 있는 서구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당대현실에서 근대성의 지표가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즉 근대화는 후진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 3. 모더니즘의 인식

#### 1) 모더니즘의 생성

우선 “모던”(modern)<sup>4)</sup>이라는 단어는 “모테르누스”(modernus)라는 라틴어의 형태로 5세기 말엽 로마의 과거를 구분짓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그것은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이행의 결과로서 파악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의식이 고대와의 관련성을 새로이 확립함으로써 형성되었던 시기, 특히 고대가 일종의 모방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하나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시기에 등장되고 강조되었다. 또 19세기에 와서 “유행적인”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평가되어 곧 도태되는 반면, “모던”한 것은 고전과의 은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용어로 면모한다. 모더니즘의 생성과 결속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더니즘이란 논자에 따라 상이한 정의나 미세한 차이는 물론, 문학사적 고찰과 철학적 근원에 대한 이해 등 방면에 거쳐 저자 나름의 인식과 분석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첫째, 자국 것이 아닌 외래의 철학사조의 한국식 이해에 입각한다는 점, 둘째, 리얼리즘과의 대립, 논쟁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모순과 대립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점, 셋째, 뚜렷한 사조의 기치아래에 있었던 사조가 아니라 여러 가

4) 아우스는 독자 반응과 관련된 비평인 “수용미학”에 몰두했던 독일의 탁월한 문학사가이자 비평가이다. “모던”에 대한 논지는 영어로 된 참고서적으로는 <수용미학>에 실린 <예술사와 실용주의>가 있다. 김옥동 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p.282.

지 서구적 갈래들이 혼합, 교차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많은 정의를 다 알아보는 일은 불가능할뿐더러—큰 갈래는 우리 나름대로 짚어보고—가장 손쉽게로는 문학사의 특정한 시기를 잡아서 그 무렵의 새롭고 특징적인 작품들 전부를 모더니즘의 산물로 이해하는 방법”<sup>5)</sup>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에 여러 논자들의 견해를 보기로 하자.

## 2) 모더니즘 정의와 인식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더니즘(일반예술)이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형식, 문체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반으로부터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20세기 서구문학예술의 경향, 현대문명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래에 대하여서는 반유토피아적인 경향을 충칭하는 말임, 즉 ‘근대주의’이다.

『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더니즘은 〈현대주의 또는 근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성도덕과 전통적 권위를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 도시의 시민생활과 기계문명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상적, 예술적 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모더니즘은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 또는 본건성에 반항,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기계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며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에 영미 주지주의(主知主義) 영향을 받고 일어난 문학사조를 뜻〉한다.

이상섭은 『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 〈모더니즘(modernism)은 현대예술의 어떤 특질을 일컫는 다소 막연한 명칭. 현대문학—유럽에서는 20세기문학 전부를 가리키기도 한다. —전체가 다 모더니즘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현대문학의

---

5) 백락청,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서구근대문학론문집』, 창작과비평사, 1983, p.427.

여러 경향 중에 특별히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것만이 모더니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모더니즘은 더 직접적으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융성하였던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19세기적 유물론과 관련이 깊은데 모더니즘은 그러한 우주관은 물론 일체의 물질주의와 산업주의를 개인정신의 부자유로 보고 반발한다.—모더니즘 문학은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실비판적이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하여 예언적인데, 그 예언은 묵시적인 세상의 파멸, 반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실에 속한 독자에 대하여 모더니스트는 이해를 돕든가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조소적이다. 현실생활에 대한 비판의 한 방법으로서 「예술의 비인간화」를 서슴치 않기도 한다.>

박민수는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국학자료원, pp.25~26)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더니즘이란, 19세기말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시기에 유럽과 미국에 드러난 광범위한 문학운동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그것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창작과 미학이론에 대하여 강한 도전적 태도를 보였다. 로찌(rodge, 1981)가 말하듯 모방으로서의 예술(「예술은 인생을 모방한다」)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모더니즘은 ‘인생은 예술을 모방한다’는 와일드(wild)의 말을 지지한다. 언어는 실제의 명백한 매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활동하며, 상징, 비인습적 구문(unconventional syntax), 애매성, 말놀이(word play), 비논리와 수수께끼 등의 용법에 의해 의식적으로 전경화된(foregrounded) 것이다. 모더니즘은 구조주의와 형식주의의 언어학적이고 문학적인 운동에 가담하였는데, 그 탐구는 예를 들어 예잇츠, 그리고 엘리엇의 시나 울프와 조이스의 소설 등의 모더니스트 저작물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모더니즘은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의 반발과 극복으로서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성격을 띠고 출현하였는데, 그것은 봉건의 전통적 권위를 부정하고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자아중심주의의 고취 및 현실비판의식과 미래에 대한 반유토피아 경향, 예술의 비인간화와 언어, 문체의 비논리화 등을 모더니즘 문학의 주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의 관계

모더니즘을 논하면서 단순한 미학적 예술 운동을 넘어서 시대와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앞서 흔히 모더니즘의 개념과 혼동되는 ‘모더니티(modernity)’의 의미와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걸림돌이 모더니티라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은 서로 연계되면서도 구별된다. 우선 ‘모더니티’는 ‘근대성’ 혹은 ‘현대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주로 역사적 개념이거나 철학적 개념이다. 서구의 역사에서 보면,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각각 마술의 시대와 종교의 시대와 과학의 시대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시기는 순서적으로 고전주의로 특징짓는 고대는 빛의 시대, 중세기는 암흑기로서 어둠의 시대, 르네상스로 시작되는 근대는 어둠에서 해방된 시대로 불리운다. 여기서 재생이나 부흥의 시대를 의미하는 고대 시기의 고전이나 권위에 대한 숭배사상은 중세의 신권숭배 사상과 별 다른 점이 없었다.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는 고대나 중세기와는 여러 면에서 뚜렷한 구별이 지어져 있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이론가들은 ‘계몽주의’와 ‘모더니티’ 그리고 ‘현대적 감성’ 등과 같은 용어를 동의어로 쓰기도 하였다. 하여튼 이 모더니티는 인간의 삶을 과거보다 한 걸 더 발전되고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 모더니티에 대한 해석은 칼리니스쿠(Calinescu)의 저서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저자는 이 저서에서 우선 모더니티를 ‘현실 모더니티’(혹은 역사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현실 모더니티란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산업혁명 및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미적 모더니즘은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부정과 반동으로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문학예술 영역에서 심미적 모더니티를 사용한 사람은 샤를르 보들레르인데, 그는 「현대 생활의 화가」(1863)라는 논문에서 일시성이나 우연성 안에서 파악된 「감각적 현재」를 가장 중요한 모더니티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더니티는 일시적인 것, 속절없는 것, 우발적인 것으로서 예술의 반을 차지하며, 예술의 나머지 반은 영원한 것과 불변하는 것이다. ...너무 빈번하게 바뀌는 이 일시적이고 속절없는 요소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을 경멸할 권리도 무시할 권리도 없다...

모더니티를 심미적 범주로 파악한 보들레르를 이어 서구 문학사에서 나타난 예술운동이나 경향을 가리켜 ‘모더니티’라고 부른 사람은 데이비드 브룩스를 들 수 있다. 그는 모더니티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에 풍미하던 예술 경향은 물론 17세기 초엽, 왕정복고 시대와 18세기 초엽의 예술 경향까지도 포함하는데, 모더니즘은 오직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 서구 문학을 통하여 나타난 특정한 예술운동이나 경향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절대적·질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모더니티는 거의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양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밀접한 관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는 후자를 수용하는 입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후자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결한 것이다.

한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이즘(ism)’이라는 접미사가 의미하듯이 어떤 한 집단의 공통된 원칙이나 입장 또는 태도를 표현해주고 있다. 모더니즘은 중요한 면에서 모더니티의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서 비롯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두 현상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즉 모더니즘은 심미적 모더니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것보다 더 제한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자면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서구 예술에 풍미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모더니티는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현재에 까지 줄곧 이어져왔으므로 역사가 사뭇 오래된다. 칼리니스쿠는 『모더니즘의 다섯 얼굴』에서 비유적으로 이 양자의 관계를 가족의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더니티가 가문의 성(姓)에 해당된다면 모더니즘은 바로 개인 이름에 해당된다. 마치 올챙이와 개구리를 혼동하지 않는 듯이 이 두 개념을 변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더니즘은 단순히 문학의 범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예술분야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포괄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더니즘 문학은 어디까지나



모더니즘 예술 가운데 오직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모더니즘 예술의 전체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의 개념과 본질을 규명하려면 문학을 포함한 여러 예술 분야에 대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음악의 모더니즘은 전통 음악과는 달리 멜로디가 없거나 상이한 유형의 조화를 강조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데서 표현된다면, 회화나 조각에서는 형상을 재현하지 않는다거나 색과 질료를 강조한다거나 기하학적 형상을 중시하는 데서 표현되고,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은 순수한 기능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배제해버리고 극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예술 분야의 모더니즘은 서로 다른 구별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이러한 보편적 특징은 다른 예술 분야에서보다도 문학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5. 결론- 한국문학의 특징

서구에서는 모더니즘 문학이 20세기 이후 과학과 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 출현하였다. 이에 인간정신의 약화되어 실존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써 인간의 실존문제와 모더니즘이 긴밀히 연계되었다. 반면, 30년대 모더니즘에는 과학과 문명의 숙성된 기반이라는 모더니즘의 전제가 놓여있지 않았다. 서구 모더니즘에서 합리적인 근대정신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 되어 한국적인 특수성으로 되었다. 근대성 지향의 강박관념은 근대의 반성에 앞서 전통과의 단절과 선진 문명의 수용을 선결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를 계기로 모더니즘 문학이 등장하였다. 김기림은 한국 근대시사에서 모더니즘을 의식적으로 수용한 최초의 이론가이며 시인이었다. 1930년대 중반 카프해산 이후 문단은 재편성되고 '구인회'는 김기림의 문학적 기반으로 되었는데 그가 모더니즘을 통해 추구한 문학은 긴요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모더니즘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렵지만<sup>9)</sup> 근대성에 관한 대응의 중요한 한 양상으로

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구문명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김기림에게 있어서 근대성은 가치 지향적인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서구의 과학정신은 근대성의 지표하에서 전근대적인 전통과 뚜렷한 대립 명제로서 인식되었다. 전통을 부정적인 현실의 조건으로 파악한 반면 서구근대종신, 특히 과학에서는 그것을 타개할 새로운 지향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김기림이 인식한 근대성의 핵심에는 과학지향적인 사고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시학은 문학과 현실, 근대성과 모더니즘에 관한 인식에 토대로 모더니즘 문학이 이어진다. 그러나 실제창작에서는 각기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유진 린, 김병익 역,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지성사, 1986.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사, 2002.  
 강상희,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一, 문예출판사, 1999, 5.  
 칼리니스쿠, 이영옥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언어, 1993.
- 최혜실,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연구」, 박사논문, 1992.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9.  
 이강언,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7.

---

6) 백락청, 위의 글, p.427.